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귀인*

Mothers' Perception and Attribution of Parenting Efficacy for the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호서대학교 신학인간개발학부 아동학 전공
조교수 한유미**

Major in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an, You-Me

〈Abstract〉

Many par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cial development during early childhood but they feel difficulty in helping their children develop socially.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maternal cognition is an important factor on their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development.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other's perception and attribution of parenting efficacy fo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otal 247 mothers of three to five year-old children reported self-questionnaire consisting of Melson, Ladd, & Hsu(1993)'s Perceived Difficulty at Parenting Tasks, Criniic & Greenberg(1990)'s Parenting Daily Hassles and Abdin(1990)'s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Also, 82 of the subject's children were individually tested with McGinnis & Goldstein(1990)'s Skill Situations Measure.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1) Mothers' parenting efficacy fo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child's age, mother's education and the father's cooperation of parenting.
- 2) Mothers' perceived parenting effica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me dimension of the child's actual social skill (i.e., maintenance of peer relation).
- 3) Mothers of young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to their children for their parenting efficacy than those of old children.
- 4) Mothers were more likely attribute to their children than themselves when they perceive parenting difficult.
- 5) Mothers who perceive parenting easy and attributed it to their children had less parenting stress than those of attributing it to themselves.

▲주요어(Key Words) : 양육 효능감(parenting efficacy), 귀인(attribution), 어머니의 인지(maternal cognition)
사회성 발달(social development)

I. 서론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로 수유, 배변, 수면 등의 신체

적, 생리적 욕구 충족과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을 중심으로 양육을 수행하게 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부모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유아의 중요한 미시체계로 등장하게 되어 또래관계 형성이나 기관에서의 적응과 같은 사회성 발달이 유아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사회성을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한유미(e-mail : hanyu@office.hoseo.ac.kr)

양육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인지발달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던 과거 부모들에 비해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은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그리고 외동이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역시 부모로서 자녀의 사회성을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양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최형성·정옥분, 2000). 즉, 부모의 행동을 독립변수로 보고 자녀의 발달을 종속변수로 보던 기존의 연구 모형과 달리, 부모의 행동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부모의 인지가 부모의 행동을 중재한다는 입장에서 양육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신양재,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하나가 양육 효능감이다. 양육 효능감이란 Bandura(1977)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한 것으로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

선행연구들(Coleman & Karrake, 1997; Dumka, et al, 1996;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에 의하면 자신의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자신의 양육 효능감을 낮게 평가하는 어머니는 통제적, 강압적, 처벌적 양육행동을 보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최형성·정옥분, 2000). 또한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Ladd와 Price(1986)의 연구에서 자녀의 사회성을 양육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은 그것을 쉽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자녀를 갖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사회성을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은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고 무력감이나 우울함을 느끼게 됨으로써(Bugental et al., 1989) 양육 행동을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Melson et al., 1993). 이와 같이 볼 때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성 양육 효능감은 어머니의 자아형성과 양육 행동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의 일반적 경향 및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이해는 효율적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자녀의 연령과 출생순위(Gross et al., 1989), 어머니의 교육 수준, 소득(Teti & Gelfand, 1991), 사회 경제적 지위(전인옥·이경옥, 1999), 취업 유무(안지영, 2001), 아버지의 학력(문혁준, 1999)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계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나 친한 친구

와의 친밀한 관계, 이웃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나 도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김기현, 1998; 신숙재, 1997; 우희정, 1993; Cochran & Brassard, 1979; Crinic et al., 1983; Crinic & Greenberg, 1990; Frank et al., 1986; Simons et al., 1993). 이 중에서 특히 배우자의 지지 즉, 남편의 육아 협조는 다른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므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형성 과정을 연구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숙재, 1997; Simons et al., 1993).

한편 어떤 어머니들은 양육 효능감이 높거나 낮은 것을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이나 양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를 자신보다 자녀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들도 있다. 이에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에 입각한 최근의 연구들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신념뿐 아니라 자신과 자녀 중 누가 양육 결과를 통제한다고 보는가 하는 부모의 귀인이 부모의 정서와 양육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Bondy & Mash, 1999; Bugental et al, 1998). 예를 들어, Bugental과 동료들(1998)은 양육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을 '자기 귀인'(어머니 자신의 양육 능력)과 '자녀 귀인'(아동의 성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양육의 실패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볼 때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아지게 되고 강압적인 양육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귀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녀의 긍정적 행동은 자녀의 타고난 성향으로 지각하는 반면, 자녀의 부정적 행동은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으로 귀인 함을 제시하고 있다(Dix & Grusec, 1985; Knight, 1985).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들의 편중된 귀인 성향은 어머니 및 자녀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보다 나이든 자녀의 경우(Dix et al, 1986; Gretarsson & Gelfand, 1988), 외동이 보다는 형제가 많은 자녀의 경우(McGillicuddy-DeLisi, 1982) 그리고 남아보다는 여아의 행동 특성을 자녀의 기질 또는 선천적인 것으로 귀인하며(Gretarsson & Gelfand, 1988), 취업모보다 비취업모나 시간제 취업모가 자녀의 실패를 자녀의 내적 요인으로 귀인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Jaworski & Hubert, 2002).

이상과 같이 볼 때 사회성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귀인은 실제 자녀의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귀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측면과 학업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Hess et al, 1986; Holloway, 1986; Okagaki & Sternberg, 1993), 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어머니의 귀인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Müller, 1995). 또한 어머니의 귀인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에

미치는 제 변인(권은정, 1995; 신양재, 1999)과 어머니의 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박경란·장현숙, 1999; 위영희, 1992; 이은희, 1996; 차영란, 1992)이나 자녀의 발달(김남희, 2003; 이치형, 2002)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자녀의 가상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에 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귀인 대상을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하고, 귀인 소재 역시 자녀의 '기질' 요인(내적 귀인)이나 '상황' 요인(외적 귀인)으로 나누어 보고 있을 뿐 어머니 자신을 귀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지도하면서 실제로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 효능감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들의 귀인 양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자녀의 사회성을 양육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경우와 자녀의 기질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나 심리 상태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을 밝혀보고,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자녀의 실제 사회성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의 일반적 경향

1-1: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은 인구통계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은 아버지의 육아 협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은 실제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의 일반적 경향

3-1: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은 인구통계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2: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은 아버지의 육아 협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4>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은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에 소재 한 어린이집 6곳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를 둔 어머니 237명이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세(SD=3.65)로, 30세 이하 14.6%, 31-40세 79.1%, 41세 이상 6.3%이었다. 전업주부 53.2%, 취업모 46.8%이었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42%, 전문대졸 12.7%, 대졸 39.5%, 대학원졸 이상 5.9%이었다. 해당 자녀의 연령은 만 3세가 21.35%, 만 4세가 42.7%, 만 5세가 36%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52%, 여아 48%이었다. 출생순위별로는 맏이 34.9%, 둘째 35.8%, 셋째 7.5%, 외동이 21.7%이었다(<표 1> 참조).

한편 연구문제 2의 경우에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개별 검사해야 하므로 연구대상 중 일부 어머니들의 자녀(만 4-5세 중 82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 및 귀인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 및 귀인은 Melson, Ladd와 Hsu(1993)의 Perceived Difficulty at Parenting Tasks의 사회성 과제 차원을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은 '○○가 다른 아이들과 싸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 '○○가 친구 사귀는 것을 지도하는 것' 등 10가지 사회성 양육 문항을 얼마나 쉽다고 지각하는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함으로써 10-40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해당 자녀에 대한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교수 2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Cronbach Alpha로 구한 신뢰도는 .80이었다.

어머니의 귀인은 이상과 같은 10가지 사회성 양육 문항에 대해 그것이 쉽거나 어려운 원인이 어머니 자신에게 있는지, 자녀에게 있는지 체크하게 하여 반응 당 1점을 부여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 체크한 경우에는 자기 귀인과 자녀 귀인에 각기 1점씩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 귀인과 자녀 귀인은 모두 0-10점의 범위를 갖게 된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됨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Crinic과 Greenberg (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를 번안·수정한 박성옥·양영숙(1998)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됨으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와 '자녀양육 요인(7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15-75점이며, Cronbach Alpha는 .88이다.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37

| | | 빈도 | 퍼센트 |
|-----------|---------|-----|------|
| 자녀 연령 | 3세 | 50 | 21.3 |
| | 4세 | 101 | 42.7 |
| | 5세 | 86 | 36.0 |
| 자녀 성별 | 남아 | 122 | 51.5 |
| | 여아 | 115 | 48.5 |
| 자녀 순위 | 첫째 | 74 | 34.9 |
| | 둘째 | 76 | 35.8 |
| | 셋째 | 16 | 7.5 |
| | 외동이 | 46 | 21.7 |
| 아버지 연령 | 30세 이하 | 6 | 3.0 |
| | 31-35세 | 79 | 38.9 |
| | 36-40세 | 89 | 47.8 |
| | 41세 이상 | 27 | 13.3 |
| 아버지 학력 | 고졸 이하 | 52 | 25.6 |
| | 전문대 졸 | 25 | 12.3 |
| | 대 졸 | 89 | 43.8 |
| | 대학원 졸 | 37 | 18.2 |
| 어머니 연령 | 30세 이하 | 30 | 14.6 |
| | 31-35 세 | 108 | 57.6 |
| | 36-40 세 | 44 | 21.5 |
| | 41-45 세 | 13 | 6.3 |
| 어머니 학력 | 고졸 이하 | 86 | 42.0 |
| | 전문대 졸 | 26 | 12.7 |
| | 대 졸 | 81 | 39.5 |
| | 대학원 졸 | 12 | 5.9 |
| 어머니 취업 | 전업주부 | 108 | 53.2 |
| | 취업모 | 95 | 46.8 |

3) 남편의 협조

남편의 협조는 Abidin(1990)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의 하위척도 Teamwork를 수정·변안한 신숙재(1997)의 척도를 이용했다. 이 척도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총점은 13-65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Cronbach Alpha는 .85이다.

4) 유아의 사회적 기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제작한 기술상황척도(Skill Situations Measure)를 이원

영·박찬옥·노영희(1993)가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정서조절기술, 또래관계형성기술, 기관적응기술 등 세 가지 차원에 각기 5문항씩 총 15개 문항이 문제 상황으로 제시된 그림 인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검사로 행해진다. 검사자는 유아와 레포를 형성한 후 유아에게 그림에 있는 내용을 들려주고 유아의 반응을 기록지에 기록하며, 검사가 끝난 뒤 유아의 반응 내용을 분석하여 적극적 반응 4점, 소극적 반응 3점, 공격적 반응 2점, 무관련 반응 1점, 무반응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범위는 각 차원별로 0-20점이며, 채점자간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2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사회적 기술 척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슬퍼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이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장은 '친구가 속상해하거나 슬플 때는 내가 친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와 같이 구어체로 쉽게 바꾸었다. 그리고 아동학 전공의 대학원생 3인을 훈련하고 모의 검사를 실시한 후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개별 검사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교사의 협조로 각 유아를 통해 가정으로 전달한 뒤 1-2주일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00부였는데, 이중 241부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질문지중 전체적으로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 4부를 제외하고 23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회수율 약 87%). 부분적으로 무응답 한 질문지는 해당 변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변인들은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연구문제별로 연구대상의 수가 다소 차이가 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되었다. 백분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 외에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3은 일원변량분석과 추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2는 Pearson 적률 상관관계, 연구문제 4는 카이 검정, 연구문제 5는 독립 t 검정 등의 추리통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

<표2>과 같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은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학력 등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의 연령이 만 3세나(M=21.56) 4세(M=22.85)인 어머니들이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M=26.15)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F=7.546, p<.001). 또한 전문대졸 어머니(M=20.36)보다 대졸(M=24.48)이나 대학원졸(M=25.3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성 양육 효능감도 높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F=4.526, p<.01). 그러나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3>와 같이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남편의 육아 협조간에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r= .39, p<.05). 즉, 남편이 육아 협조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양육을 잘 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자녀의 사회성 발달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이 실제 자녀의 사회성 발달 정도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4>와 같이 개인정서조절기술, 대인관계형성기술, 기관적응기술 등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한 점수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성 양육 효능감은 실제 자녀의 사회적 기술 중 일부 차원(대인관계형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

견되었다. 즉, 자녀의 사회성을 잘 양육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는 실제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었다(r=.21, p<.05). 그러나 사회적 기술의 나머지 차원들은 사회성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표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남편의 육아협조간의 상관관계 N=197

| 남편의 육아협조 | |
|--------------------|------|
|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 | .39* |

<표4> 어머니의 지각과 실제 유아의 사회적 기술 N=82

| | 정서조절 | 대인관계 | 기관적응 | 총계 |
|------------|------|-------|------|-----|
| 사회성 양육 효능감 | .13 | .210* | .15 | .19 |

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

어머니가 자신이 자녀의 사회성을 잘 양육하거나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귀인을 <표5>와 같이 어머니 자신(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과 자녀(자녀의 기질 때문) 두 가지 귀인 소재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귀인보다 자녀 귀인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녀 귀인 점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머니의 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자기 귀인 정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 귀인 정도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후검증 결과 만 3세(M=7.29)나 만 4세 (M=6.57)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M=5.45)의 자녀 귀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88, p<.01).

<표6>은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남편의 육아 협조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사회성 양육을 잘(못)하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거나 혹은 자녀 때문이라고 귀인 하는 것 모두 다 남편의 육아 협조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귀인의 관계

어머니 귀인 양식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7>과 같이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느끼는 어머니들과 낮다고 느끼는 어머니들 간에 자기 귀인 및 자녀 귀인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표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 N=237

| | | M | SD | F |
|--------|--------------|---------|------|---------|
| 자녀 연령 | 3세 (50) | 21.56 A | 5.53 | 7.55*** |
| | 4세 (101) | 22.85 A | 6.85 | |
| | 5세 (86) | 26.15 B | 5.72 | |
| 자녀 성별 | 남아 (122) | 20.19 | 5.62 | 1.23 |
| | 여아 (115) | 19.02 | 5.10 | |
| 자녀 순위 | 첫째 (74) | 18.71 | .83 | .95 |
| | 둘째 이하 (92) | 20.37 | .81 | |
| | 외동이 (46) | 19.45 | 1.24 | |
| 어머니 연령 | 33세 미만 (105) | 22.39 | 6.58 | 1.73 |
| | 33세 이상 (97) | 23.56 | 6.01 | |
| 어머니 학력 | 고졸이하 (86) | 21.90AB | .66 | 4.53** |
| | 전문대졸 (26) | 20.36 A | 1.67 | |
| | 대졸 (81) | 24.48 B | .60 | |
| | 대학원졸 (12) | 25.33 B | 1.88 | |
| 어머니 취업 | 전업주부 (108) | 23.33 | 5.99 | .69 |
| | 취업모 (95) | 22.60 | 6.69 | |

결과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 중에는 자기 귀인(49.0%)과 자녀 귀인(51.0%)이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낮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자신(33.7%)보다 자녀의 탓(66.3%)으로 여기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934, p<.05$). 따라서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낮을수록 자녀 귀인을 많이 하거나 혹은 자녀 귀인을 많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 N=237

| | | 자기 귀인 | | | 자녀 귀인 | | | |
|-----------|------------|-------|------|------|-------|------|--------|--|
| | | M | SD | F | M | SD | F | |
| 자녀 연령 | 3세 (50) | 4.36 | 3.34 | .041 | 7.29A | 2.74 | 4.88** | |
| | 4세 (101) | 4.43 | 4.43 | | 6.57A | 3.23 | | |
| | 5세 (86) | 4.43 | 4.55 | | 5.45B | 3.29 | | |
| 자녀 성별 | 남아 (122) | 4.73 | 3.69 | .29 | 7.75 | 5.62 | .52 | |
| | 여아 (115) | 4.35 | 3.38 | | 7.35 | 5.10 | | |
| 자녀 순위 | 첫째 (74) | 4.31 | 3.40 | .46 | 7.26 | 2.88 | .95 | |
| | 둘째이하 (92) | 4.41 | 3.72 | | 7.98 | 2.50 | | |
| | 외동이 (46) | 5.18 | 3.39 | | 7.14 | 3.20 | | |
| 어머니 연령 | 33세미만(105) | 4.40 | 3.28 | .00 | 6.56 | 3.12 | .09 | |
| | 33세이상(97) | 4.39 | 3.40 | | 6.69 | 3.13 | | |
| 어머니 학력 | 고졸이하(86) | 4.62 | 3.59 | .62 | 6.63 | 3.31 | .89 | |
| | 전문대졸 (26) | 4.58 | 3.69 | | 6.18 | 3.65 | | |
| | 대졸 (81) | 4.27 | 2.94 | | 6.74 | 2.72 | | |
| | 대학원졸 (12) | 3.33 | 3.36 | | 6.67 | 3.36 | | |
| 어머니 취업 | 전업주부(108) | 4.53 | 3.10 | .21 | 6.54 | 2.93 | .06 | |
| | 취업모 (95) | 4.31 | 3.61 | | 6.84 | 3.31 | | |

<표6>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과 남편의 육아 협조간의 상관관계 N = 197

| | 자기 귀인 | 자녀 귀인 |
|----------|-------|-------|
| 남편의 육아협조 | .12 | -.12 |

<표7>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귀인

N=203

| | 자기 귀인 | 자녀 귀인 | 계 |
|--------------------|-----------|-----------|-----------|
|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 | 34(33.7%) | 67(66.3%) | 101(100%) |
|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 50(49.0%) | 52(51.0%) | 102(100%) |

$\chi^2=4.934$

5.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지각과 귀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표8>과 <표9>는 사회성 양육 효능감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고, 자기 귀인을 하는 어머니와 자녀 귀인을 하는 어머니들 간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8>과 같이 자녀의 사회성 양육이 어렵다고 지각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자신으로 지각하는 어머니와 자녀로 지각하는 어머니들 간에는 유사한 정도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가 발견되었다($t=0.75, ns$). 그러나 <표9>와 같이 이를 쉽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유의한 집단 차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사회성 양육이 쉬운 이유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M=40.43$)보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M=35.55$)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았다($t=-1.99, p<.05$).

<표8>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의 귀인 양식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N=101

| | M | SD | t |
|------------|-------|-------|------|
| 자기 귀인 (34) | 41.87 | 10.45 | 0.75 |
| 자녀 귀인 (67) | 41.70 | 9.70 | |

<표9>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귀인 양식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N=102

| | M | SD | t |
|------------|-------|-------|--------|
| 자기 귀인 (50) | 35.55 | 8.46 | -1.99* |
| 자녀 귀인 (52) | 40.43 | 10.00 | |

IV. 논의 및 결론

연구문제에 따라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만 4세 이하 유아의 어머니가 만 5세 이상 유아의 어머니보다 사회성 양육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녀 양육 경험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관계 있으므로(Gross et al, 1989) 만이보다 둘째 이하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어긋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외동이의 증가 및 소자녀화로 인한 것으로 일부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성 양육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 볼 때에는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 유무는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과 관계가 없고, 어머니의 학력만이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은 남편의 육아 협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부모로서 도와주며 양육에 대한 의견이 자신과 일치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발견한 선행 연구들(김기현, 1998; 신숙재, 1997; 우희정, 1993; Frank et al., 1986; Simons et al., 1993; 신숙재, 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서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심리적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해준다.

둘째,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사회성을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각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자녀의 탓으로 귀인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자녀의 내적 요인으로 귀인 한다는 선행연구들(Dix et al, 1986; Gretarsson & Gelfand, 1988)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자녀가 나타내는 행동의 원인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 하면서 지각하는 어머니의 능력에 대한 귀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자녀 귀인이 증가하는 것파 달리, 어머니의 자기 귀인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들은 사회성 양육을 잘(못)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과 자녀의 특성 모두 때문이라고 지각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들은 자신보다는 자녀의 타고난 특성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녀가 셋인 어머니에 비해 외동이를 둔 어머니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고 한 McGillicuddy-

DeLisi(1982)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도 외동이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의 자기 귀인이 높고, 둘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의 자녀 귀인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행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자녀의 행동 및 발달 특성을 친구, 학교, 유전 등의 탓으로 돌리는지, 그리고 외동이를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 및 인성 차이를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자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자로 지각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Himmelstein et a., 1991). 이외에도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사회성 양육 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보다는 여아의 행동 특성을 자녀의 기질로 귀인하며(Gretarsson & Gelfand, 1988), 취업모보다 비취업모나 시간제 취업모가 자녀의 실패를 자녀의 내적 요인으로 귀인 한다(Jaworski & Hubert, 2002)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선행연구(자녀의 행동을 자녀의 기질 대 상황으로 귀인)와 본 연구(어머니의 양육 능력을 자신 대 자녀로 귀인)의 귀인 대상 및 귀인 소재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을 양육하는 것을 쉽다고 지각할수록 실제 자녀는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dd와 Price(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자녀의 사회성을 양육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을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Melson et al., 1993). 그러나 반대로 실제 자녀의 또래 관계가 좋아서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이 높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지각과 실제 자녀의 또래관계 형성간의 관계는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성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유아가 기관에 적응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 사회적 기술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능력에 관한 척도가 주로 친구관계 형성, 유지하도록 돕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유아가 기관에 적응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다소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자신이 사회성 양육을 잘(못)하는 원인을 어머니 자신보다는 자녀에게 귀인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성 양육을 잘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머니 자신에게 귀인 하는 어머니와 자녀에게 귀인 하는 어머니가 반반이었으나 사회성 양육을 잘 못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귀인 하는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귀인 하는 어머니가 훨씬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긍정적 행동은 자녀의 타고난 성향으로 귀인하고 자녀의 부정적 행동은 상황적

요인으로 귀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Dix & Grusec, 1985; Knight, 1985)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결과는 자신의 탓으로 귀인하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려는 경향(헤도닉 편견)이 있음을 시사한다(Himmelstein, et al., 1991).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잘 양육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어머니 자신으로 귀인 할 때와 자녀로 귀인 할 때 간에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었다. 자녀의 사회성을 잘 양육한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귀인 하는 경우보다 자신에게 귀인 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 효능감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귀인 양식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Bondy & Mash, 1999; Bugental et al., 1998).

결론적으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연령이나 어머니의 학력, 남편의 육아 협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시 자녀의 실제 사회성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귀인 양식에 따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로 보아 어머니 자신의 행동이나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양식 역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지각 및 귀인은 사회성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발달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각 영역의 양육 효능감의 특성을 비교하고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유의표집을 하고, 연구대상 중 일부 어머니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였으므로(연구문제 2)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정밀한 분석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가상적 상황에서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연구되어 온 어머니의 귀인을 어머니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적용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을 귀인 대상으로 시도해보았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회성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지각 및 귀인의 중요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사회성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용적 의의가 있다.

접수일 : 2003년 07월 15일

심사일 : 2003년 07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09월 23일

【참 고 문 헌】

- 권은정(1995).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남희(2003). 어머니 귀인 및 자녀 또래관계 개입행동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경란·장현숙(1999). 아동, 가족, 모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3), 143-156.
- 박성옥·양연숙(1998).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의 지지, 격리불안,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양재(1999). 아동의 도덕규범과 친사회적 문제행동 상황에서 어머니의 아동 역량 판단, 귀인 및 통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위영희(1992).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사회화 책략, 서원대학교 교육발전, 11(1).
- 이원영·박찬옥·노영희(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65-91.
- 이은희(1996).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행동 반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2), 31-42.
- 이치형(2002). 어머니의 귀인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인옥·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적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차영란(1992). 아동의 나이, 행동,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가 귀인 과정을 통해 훈육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형성·정옥분(2000).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한종혜·홍계옥(2000). 어머니의 자가지각과 양육행동 -유치원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85-111.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ondy, E. M. & Mash, E. J.(1999). Parenting efficacy,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failure, and mothers' reactions to preschool children's misbehavior. *Child Study Journal*, 29(3), 157-173.
- Bugental, D. B., Johnston, C., New, M., & Silvester, J.(1998). Measuring parental attribu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459-480.
- Coleman, P. K. & Karrake,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inic, K.A. &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 -1637.
- Dix, T. H. & Grusec, J. E.(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01-233).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ix, T., Ruble, D. M., Grusec, J. E., & Nixon, S.(1986). Social cognition in parents: Inferenti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children of three age level. *Child Development*, 57, 879-894.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s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Cochran, M.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rinic, K. A., Greenberg, M.T., Ragozin, A. S., Robinson, M.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ri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Frank, S., Hole, C.B., Jacobson, S., Justkowski, R., & Huyck, M.(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48-355.
- Gross, E., Rocissano, L., & Roncoli, M.(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9.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Gretarsson, S.J. & Gelfand, D.M.(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64-269.
- Hess, R. D. et al.(1986). Cultural Variations in Family Beliefs about Children's Performance in Mathematics: Comparisons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American, and Caucasian-American Families. ERIC No. ED265962
- Himelstein, S., Graham, S., & Weiner, B.(199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aternal beliefs about the importance of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2, 301-310.
- Holloway, S. D.(1986). The Relationship of Mothers' Beliefs to Children's Mathematics Achievement: Some Effects of Sex Differ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32, 3. 231-250.
- Jaworski, T.M. & Hubert, N.C.(2002). Mother'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3), pp.265-275.
- Knight, R. (1985, April). Parents as developmental optimis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 Ladd, G.W. & Price, J. M.(1986).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ask difficulty and children's perceived and a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7, 446-460.
- McGillicuddy-DeLisi, A. V.(1982). Parental beliefs about developmental processes. *Human Development*, 25, 192-200.
- Melson, G. F., Ladd, G.W., & Hsu, H. C.(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Okagaki, L. & Sternberg, R.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1). 36-56.
- Simons, R. L., Lorenz, F. O., Wu, C. L., & Conger, R. D.(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ion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Slep, A.M.S. & O'Leary, S.G.(1998). The effects of maternal attributions on parenting: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2), pp.234-243.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